



함께 만드는  
을지로 아카이브 프로젝트

을지로동  
2 no.12 0

을지로통 No. 12

발행일: 2022. 12

기획: 을지로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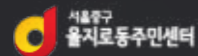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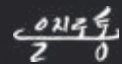
담당: 이해영 주무관

편집: 스페인책방

을지로통은

을지로에 대한 소개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동네 소식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을지로의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글로 담은 <을지로 아카이브>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표지 by 허주연

현재 다양한 회화작업과 미디어작업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을지로통의 일러스트는 따뜻한 연말,  
을지로의 마지막 선물을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리드미컬하고 팝적인 선물포장과 폭죽이  
화면을 장식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동시에 새로움을  
맞이하러합니다.

### 을지로 아카이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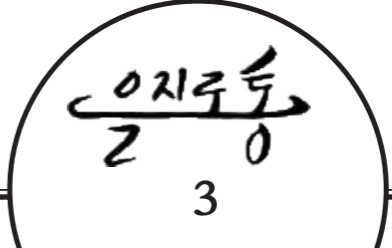
끊임없이 변화하는 을지로의 모습을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여 공유하기 위한 작업  
입니다. 지난 3년동안 글로 쓴 <을지로통>, 사진으로 찍은 <을지포커스>, 영상으로  
촬영한 <을튜브>로 을지로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기록을 위한 모든 작업은 글·사진·영상 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주민, 학생,  
교수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을지로통은 을지로아카이빙을  
다양한 색채로 채워준 분들의 소감을 들으며 막을 내립니다.

이 기록들이 천막이 드리워진 을지로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김정규



# 을지포커스

김정규

과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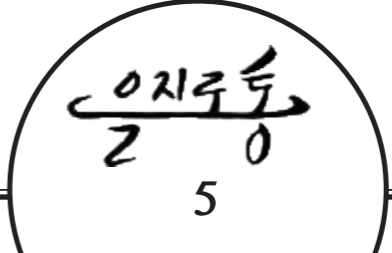
을지로 4가 뒷과목길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과목길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시 생각하니 이곳은 시절은 떠나  
지금의 과목길은 전혀가 같지 않습니다

비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귀찮기 때문인지  
오징어게임을 하며 뛰노는 모습이 성장해서  
비전을 떠나가 있고 양치 외로이 나는  
소규모 공장들을 목격하면서 아쉽게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 뒷과목길은 내아이의 고향이  
나는 추억의 길입니다.

2022년 11월

김정규





을지포커스\_ 김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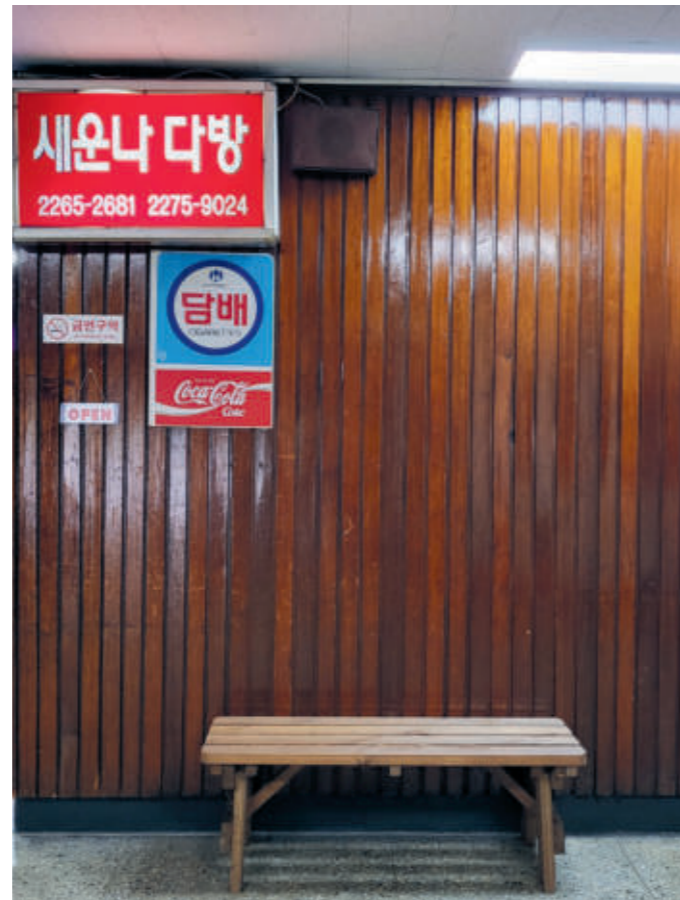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처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을지포커스 사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예쁜 모습이 보이면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셔터를 열심히 터치해 보지만 사진은 반듯하지 않고 12시 5분 전이나 5분 후 같은 삐딱한 모습만 찍혀서 실망하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맨 처음에 관장님과 작가님께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 찍어야 사진이 힘이 있고 멋있게 보인다고 말씀해주시고 시범을 보여 찍어주시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도와 주셔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을지로의 골목 골목을 누비며 카메라 셔터를 터치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살며시 스며 나오는 희열에 가슴이 벅차 오르는 뿌듯함을 느낄 즈음 아쉽게도 사진은 마감되었습니다.

사진에 대해서 문의한이었던 저에게 사진 찍는 법을 지도해주신 김유리 관장님, 김래희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을지로동 주민센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경

## 을지포커스\_ 성부경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을지로, 나는 1996년에 을지로 대림상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이다. 낡은 도시에서 새로운 도시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을지로를 매일 지켜보고 있다. 신축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곳곳에 보인다.

대림상가는 1968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건물인데 종로 세운상가에서 충무로 진양상가까지 이어지는 공중 보행교가 완공되면서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3층 보행데크에 새롭게 오픈한 음식점들과 카페들은 SNS 홍보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을지로에는 예스러운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림상가 주변을 산책하며 을지로에만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재개발되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았다.

# 을 튜브

무중력카메라, 뷰티광고 메인촬영감독 최진영

안녕하세요. 저는 2조의 멘토를 맡은 최진영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을지로동 영상 아카이빙 사업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도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올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가 정해지고 처음 회의할 때는 서로 어색하기도 하고 본인 의견 피력에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회의가 거듭되고 역할분배가 확고해지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촬영 전 발표에 많은 공을 들여 준비하고 ppt 발표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정말 열의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촬영 전에 예측 못 했던 문제들이 생겨서 촬영이 지연되고 2회차로 계획했던 촬영이 1회차로 줄여서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긴 했지만, 촬영 당일 학생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 잘해주어서 촬영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 잘 봐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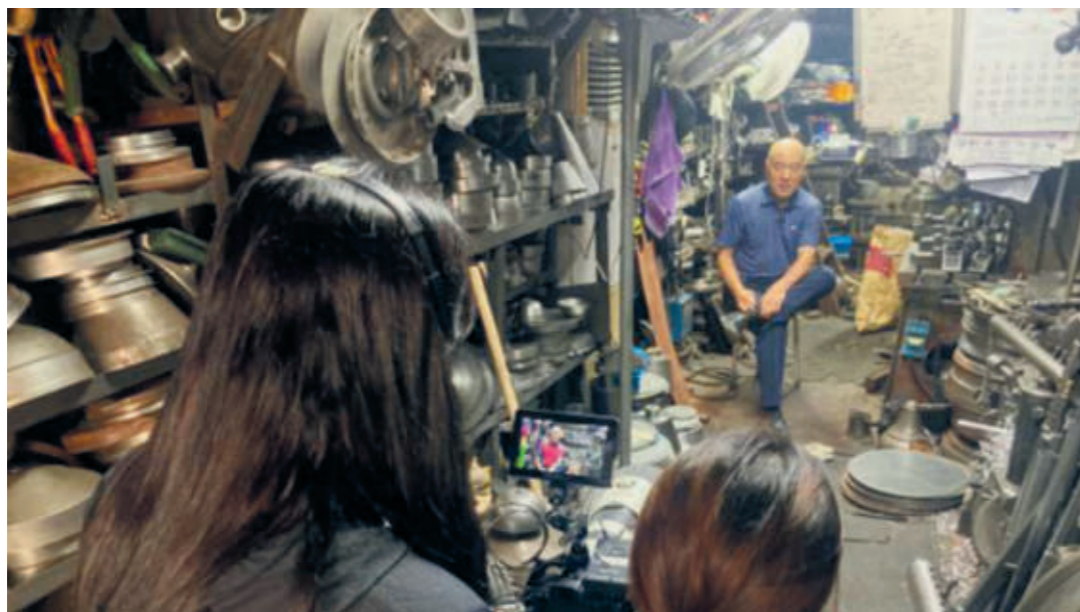


을지포커스\_ 황진연

이런저런 것들  
 촬영시작 생각난다  
 공부, 광고, 사진  
 촬영, 선생님을 본단  
 촬영이 아름답고 원샷이. 촬영장  
 보았다 들리지만 알지않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니 더욱 아름답  
 2. 난 한두번이 아니라 많은  
 것들 보았습시다 (황진연)

© 황진연

을튜브\_라이트맵대표 김성현



2022년 을지로동 아카이빙 멘토 중 한 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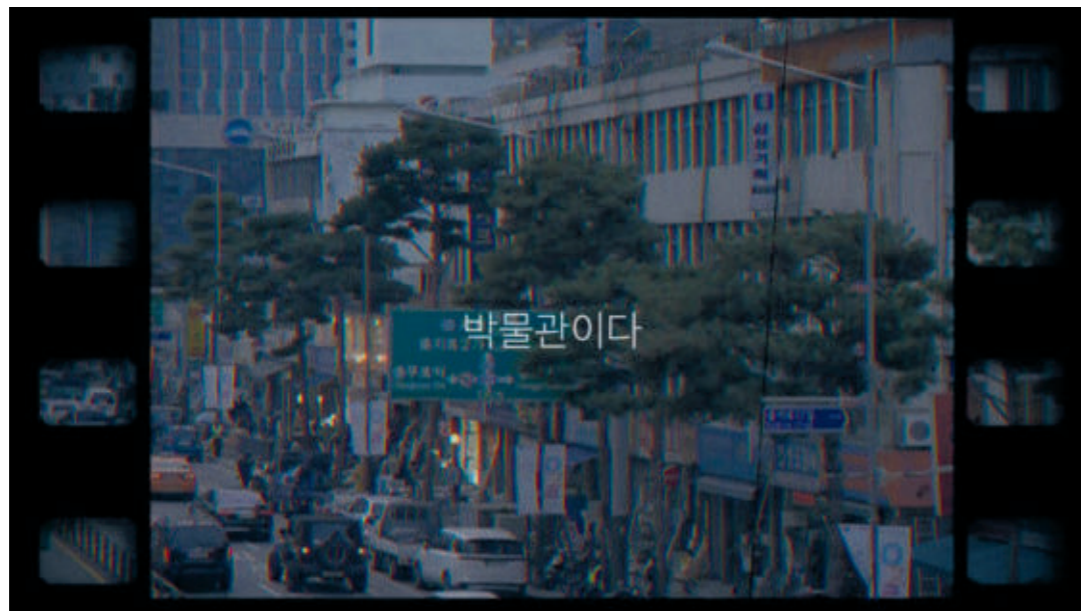
처음 을지로동 주민센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온·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 날 이후로 3조 학생들과 오프라인에서 주제, 장르, 각자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을 회의했고,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옆에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빨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똑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꾸준한 마음으로 이뤄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참여한 멘토와 멘티, 그리고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을지로아카이빙 SNS콘텐츠공모전 영상부문 최우수상  
김재용\_시간의 박물관 을지로



2022 을지로아카이빙 SNS콘텐츠공모전 영상부문 최우수상  
석승호\_Hip Town

